

봄이 무르익고 있다. 개나리, 진달래를 비롯하여 봄꽃이 만발하고 농사일도 바빠졌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적,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마을에 화전놀이가 있었다.

못자리를 끝내고 감자 옥수수도 심어 놓은 후, 모내기를 앞두고 치러지는 마을 아낙네들의 봄놀이었다. 물 좋고 그늘 좋은 산골짜기에 터를 잡고 진달래꽃을 따서 화전을 부쳐 먹으며 하루를 즐기는 화전놀이는 마을 연중행사의 하나였다.

평소에 완고하던 남편이나 엄한 시어머니들도 이날 하루만은 집안일 걱정 하지 말고 하루를 푹 쉬며 즐겁게 놀고 오라는 무언의 배려가 있었다. 시간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 먹는 술단지, 그릇과 음식재료들을 우차로 실어다 주고 산자락 밑에 있는 공지를 평평하게 골라 놀이터까지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화전놀이가 있는 날 아이들은 학교 공부가 끝나면 십리 길을 부리나케 달려 화전놀이하는 골짜기로 가곤하였다. 동네 아줌마들이 장구를 치고 춤을 추며 흥겹게 노는 모습이 보였고 음식준비로 여념이 없는 모습도 보였다.

진달래 빛을 닮아서였을까? 놀이에 흥을

출향인 칼럼

황연옥

시인, 고성문화회 부회장



추억의 화전놀이

돌우느라 마신 약간의 농주 때문이었을까? 마을 아주머니들의 얼굴은 빨그레 상기되어 있었다.

어느 해가 화전놀이 하던 날 평소에 강인하게 느껴졌던 친구 어머니가 진달래 꽃무뎀 앞에 앉아 서럽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얼싸안으며 위로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 했었는데 살아오면서 쌓인 한을 자연 속에서 조심스레 토해내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이나 세월이 지나서였다.

전쟁을 겪으며 가족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가슴 저리게 살아온 인생의 한과 슬픔을 모두 풀고 활력을 재충전하여, 일

년 농사일을 잘 내조하길 바라는 시어른들과 남편들의 배려가 화전놀이에 담겨있는 듯하다.

화전놀이 하는 날은 조무래기들도 덩달아 신나는 날이다.

아이들은 화전놀이터에서 약간 멀찍이 자리를 잡아 진달래, 철쭉, 소나무가지를 꺾어 울타리를 만들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었다. 달콤한 소나무 껍질 속 송기물을 빨아먹고 칙뿌리도 캐어먹으며 감질 나간해도 화전 부침개 한 쪽을 얻어먹는 일도 신이 났었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리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소~”

“에헤야 노야 노야~ 에헤야 노야 노야~ 어기 여차~ 뱃놀이 가 잔다~”

멀리서 들려오는 장구소리와 노랫가락에 흥이 나서 어깨를 덩실거리며 노래를 따라 불러보기도 하고 들꽃을 꺾어 머리에 꽂기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봄날의 하루가 지나고 서쪽하늘이 붉게 물들면 잔치 터를 정리한 후, 화전놀이하는 사이에 짬을 내어 뜯은 산나물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낙네들의 즐거운 행렬들이 만선의 깃발처럼 들녘에 넘실거렸다.

화전놀이는 가부장 적이고 힘 있는 남성들만 위하던 농경시대에서도 아내와 여성을 위하는 조상들의 따뜻한 배려가 담겨있는 넉넉한 봄놀이었다.

이 봄에도 전국 각처에서 봄꽃을 즐기려는 인파들이 넘쳐흐르고 있다.

그 예전 우리 조상들의 봄놀이를 살펴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을 생각해 본다. 자연에 보답하며 자신과 이웃도 즐겁고,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상춘놀이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 제가 거주하는 집이 경계에는 이웃 집과 공동으로 쓰는 담이 있는데, 얼마 전 폭우로 그 담의 일부가 무너졌는데, 담의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답) 민법 제237조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나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다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관례도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상황, 그 소재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함),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하

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특별한 관습이나 사정이 없다면 무너진 담은 공유로 추정되므로 양쪽 집이 담쌓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이웃집에서 차일피일 담의 보수를 미룬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담의 공동보수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삼성SDI(006400)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코스피 지수를 보면 시장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5일선을 추세로 쉽 없는 상승 흐름을 이어오며 전고점을 넘어선 상황이다. 지수가 신고가를 만들어 가는 상황이면 많은 종목도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이지만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일부종목에 국한된 상황이다. 이러한 구간에서 어떠한 매매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과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환하면서 시장을 만들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종목들의 흐름 역시 외인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종목으로 순환시키며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이고 별다른 상승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종목들이 상승 대열에 참여하는 시점은 새로운 시작이 아닌 시장의 상승 흐름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시장에는 제한된 자금이 순

그렇다면 현 구간에서 우리

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쉬운 선택의 기준은 지수의 흐름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종목은 매매하는 것이다. 지수의 급격한 가격 조정을 동반한 변동성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자금의 순환

흐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메이저의 편식은 계속될 것이기에 시장을 움직일 힘이 없는 우리는 그들의 행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최근 정유, 조선, 자동차, 철강 주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흐름이면서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현 구간에서 업종이나 테마를 이룰만한 강한 매수세가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종목 장세로 보는 것이 현명하다. 종목별로 매매기준을 세우고 시장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IT 업종 때문이다. IT업종은 최근 시장의 흐름에 소외되는 모습이었고 이제는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 구간에서 상승하는 것은 기술적인 흐름일 뿐이며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나가는 주도 업종으로 나서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시장의 큰 흐름은 결국 삼성전자, 포스코의 흐름을 주목해야 하는 구간이고 이 종목들이 상승한다면 반등 탄력은 다른 종목이 좋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시장의 흐름과 비슷한 종목 즉 메이저가 유입되는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삼성SDI의 움직임을 주목할 시점이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